

청룡의 해 CES 2024 키워드 'D.R.A.G.O.N' 살펴보니...

2024.01.12 11:12 파이낸셜뉴스



삼성KPMG, CES 2024 '10대 주요 트렌드' 제시 생성형 AI·'온디바이스 AI' 등 AI 비즈니스 모델 초경쟁



D	R	A	G	O	N
Digital Healthcare	Robotics	Automobile	Generative AI	On-device AI	Net Zero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안전·신뢰한 과제극복 및 솔루션 도입	스마트 조종차 구현 안전·신뢰 확보 위한 기술적 도전들의 해결	글로벌 모토스포츠 용기는 확장된 모험까지 전시	다양한 서비스와 시 각별, 플랫폼 등 중대형 사업 추진	온디바이스 시로 고객 확대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경쟁력 강화	넷제로(탄소중립) 실현 안전·신뢰 확보 위한 기술적 도전들의 해결

Source: 삼성KPMG 리서치팀

[파이낸셜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융합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비즈니스 현장과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일상 속 스며든 '공기와 같은 AI'가 강조됐다. 삼정KPMG는 12일 'CES 2024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며, 청룡의 해를 맞아해 CES 2024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D.R.A.G.O.N'을 제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오토모빌(Automobile), 생성형 AI(Generative AI),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넷제로를 포함한 ESG가 주목됐다.

1967년 처음 개최된 CES는 올해 모든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All Together. All On.' 주제로 개최됐으며, 150개국 4,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역대 최다인 76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맞춤형 케어 제품이 다수 출시됐다. 국내 기업 인바디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체성분 변화를 알리는 인바디 솔루션을 출품하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였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일상 생활에 확대되는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 LG전자는 호텔과 리테일 매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시연했고, 두산로보틱스는 로봇 팔 기반의 자원 재활용 솔루션을 공개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참가 기업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5곳 중 1곳에 이르는 등 '글로벌 오토쇼'로 불리는 만큼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됐다. 현대차그룹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독립법인인 슈퍼널은 CES 2024에서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첫 공개하고, 미래 AAM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빅테크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은 차량 AI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 시스템을 시연했다. 아마존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차량 및 운행과 관련 복잡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차량 AI 비서 모델을 내놨다.

생성형 AI 기술을 입힌 다양한 플랫폼 및 솔루션이 소개됐다. 삼성SDS는 회사 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브리티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공개했으며, 구글은 생성형 AI 기술을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ce), 구글 메시지(Messages) 등과 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CES 2024에서 온디바이스 AI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내놓았으며, 그 외 다양한 디바이스에 AI를 적용해 보다 다채로운 산업과 일상 속에 AI가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라이프스타일이 제시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CES 현장 곳곳에서 포착됐다. 특히 이번 CES에서 SK그룹은 넷제로(Net Zero)에 초점을 맞춰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탄소감축 기술과 사업을 소개했다. SK 전시관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기차 체험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기업의 전략이 고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삼정KPMG는 CES 2024에서 강조된 △AI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홈 △메타버스·Web 3.0 △디지털 헬스케어 △ESG △푸드테크(Food Tech) △스페이스 테크(Space Tech) △스타트업 등 10대 트렌드를 분석하며, 분야별 두드러진 혁신 제품 및 기술, 비즈니스 이슈를 살펴봤다. 이 중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투명 마이크로 LED TV, LG전자 무선 투명 OLED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등 투명 디스플레이가 관심을 받았다.

삼성KPMG 전자정보통신엔터미디어산업 리더 염승훈 부대표는 “올해 AI를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CES 2024에서는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첨단 기술과 제품에 다양하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AI를 산업 현장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해 일상 속 어디든지 있는 ‘공기 같은 AI’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KPMG는 올해로 8번째 CES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행사에 참석해 생생한 현장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